

자료에 따르면 효고 북부에서 은 채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,000 년 전부터로 807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도 합니다. 야카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오가는 여행자들의 역참 마을로 1800 년대까지 번창했습니다. 에도시대(1603-1867 년)에 이 마을은 막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. 광산에서 채굴된 은은 주로 무사의 경호를 받은 수송인에 의해 도보로 수송되었습니다. 은은 중요했기 때문에 막부의 관리들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마을을 방문했습니다. 1876 년 메이지 정부는 이쿠노 광산과 히메지의 시카마항을 연결하는 도로의 근대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. 머캐덤 공법을 채용한 ‘이쿠노 광산료 마차길’(현재의 ‘은의 마차길’)은 마차를 이용한 수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.

전성기에는 야카타마치에 9 곳의 하타고(여관)가 있었습니다. 그중 2 곳은 ‘고요야도’라고 불리는 정부 관리용 숙소이며, 남은 7 곳은 ‘잇판야도’라고 불리는 일반인을 위한 숙소였습니다. 그 외에 술집이 6 곳, 대부업체가 3 곳,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. 역참 마을이었던 시절의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, 마을을 통과하는 옛길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다.